

미국 하버드대 오케스트라단, 전주 방문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공연팀, 클래식 공연 진행 수익금 기부·한국 문화 체험 등 즐겨

전주시는 미국 하버드대학생들로 구성된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이하 HRO) 공연팀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내한 공연과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전주를 찾은 HRO 단원 100여 명은 첫날 전주에 도착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직접 만들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을 느꼈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가득 채운 관람객들을 위해 △핀란드 작곡가 카이야 시리아호의 '겨울하늘(Gel d'live)' △프랑스 모리스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Daphnis et Chloe)' △차이코프스키의 '5번 교향곡' 등을 장장 2시간에 걸쳐 선보였다.

HRO는 전주 방문 이틀째인 15일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



미국 하버드대학생들로 구성된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공연팀이 지난 14~15일까지 이틀간 전주를 방문했다.

주 공연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HRO 대표단은 이날 전통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주 동헌에서 전주시장을 예방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차세대 글로벌리더가 될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주와 한국의 문화

와 역사를 소개하고, 세계 속에 전주를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HRO 단원들은 이후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태권도와 조선잡 등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체험한 뒤 마지막 공연지인 경남 통영으로 이동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이자 역사, 음식창의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공민 수익금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준 HRO 측의 뜻을 받아 전사 도시 전주의 소외계층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RO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음악공연 단체로, 지난 1808년에 창단돼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북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오케스트라 단체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라인 청소년연극 활동 진행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콤포드립)는 지난 15일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소양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추진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청소년연극 '다시 시작이야'를 활용에 이뤄졌다.

전주시 콤포드립은 이날 교육에서 △도박에 대한 실태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방법 등을 온라인 청소년연극을 통해 설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중독 예방법을 토론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중 도박 문제 위험집단은 전체의 12.6%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 문제 위험집단(전체의 4.8%)보다 많은 도박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

(34.4%)고 답하거나, '심각하지 않다'(12.8%)고 응답하는 등 47.2%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중독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 콤포드립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을 돕고,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 문제 예방을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마약·도박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독 문제의 위험성을 알고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해 안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콤포드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직업교육훈련,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동행 수검과 1:1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s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꼼짝마'

22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집중 지도·단속 실시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뺨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이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하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

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신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뺨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

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봄맞이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중앙동 통장협의회(회장 조석신)는 지난 15일 통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동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모인 통장협의회체와 중앙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오거리문화관광, 영화의거리, 팔달로, 전주초등학교 등 청소취약지를 중심으로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통장협의회체와 중앙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를 홍보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석신 통장협의회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나아가 5월에 개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화영 중앙동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



전주시 중앙동 통장협의회체는 지난 15일 통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동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경정비 활동을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덕진구,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18일부터 제조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관리능력,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업소 현황 및 규모와 생산능력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설정, 유통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을 2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151~200점)는 자율관리업체로 지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최대 2억2천만원 이내)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준에 미흡한 업체(80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실시한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평가를 통하여 업체별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평가 결과에 상응한 업체별 맞춤형 지도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